



본회, 월동용 조사료 공급개시

- 갈잎큐브와 갈잎 동시 공급, 농가편의 위해 다양한 사료도 구비 -

월동용 조사료 구입시기에 맞춰 본회에서 8월말부터 갈잎큐브 및 갈잎을 공동구매, 농가 공급을 시작기로 결정했다.

갈잎큐브는 2002년부터 본회가 공급했던 품목으로 갈잎 잎사귀를 그대로 압축, 고품화한 제품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조사료의 가치(반추활동 촉진)는 그대로 보전한 조사료로 공급이후 농가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어 왔다.

큐브 생산업체 대표 강형식 사장은 “지난해에도 큐브 제조 공정에 몇 차례에 걸쳐 이물질 선별작업을 실시해 제품이 우수했으나 올해는 품질 향상에 더욱 초점을 맞춰 시설 설비를 확충, 지난해보다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큐브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특히 열처리 과정에서 간혹 발생하던 고품화 현상을 완벽히 제거, 지난해보다 한결 부드러운 갈잎큐브를 만날 수 있게 됐다.

(주)형원무역이 중국에서 생산 수입하는 갈잎큐브는 제조 공정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물질(흙, 돌, 철사, 줄기 등) 선별작업을 실시,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갈잎 성상을 그대로 유지, 조사료로서의 가치를 향상시켰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제조 과정 중 순간 고열처리로 기호성 향상은 물론 수분함량을 낮

춰 제품 보관 및 건물섭취량 증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회는 제품의 균일한 품질 유지 및 텀핑 방지를 위해 형원무역측과 갈잎큐브 공급을 독점 계약했으며 공급 가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kg당 300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본회는 갈잎큐브와 더불어 일반 갈잎도 현재 공급하고 있다. 갈잎은 상수리잎과 떡갈잎 두종류이며 가격은 모두 kg당 330원에 공급된다. 또한 완벽한 품질을 원하는 농가를 위해 일명 ‘프리미엄 갈잎’도 공급하고 있다. ‘프리미엄 갈잎’이란 이물질제거 작업을 거쳐 완제품으로 포장된 일반갈잎을 다시 한번 풀어헤쳐 인력과 기계를 투입, 이물질을 완벽 제거한 갈잎이다. 다만 인력 투입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 일반 갈잎보다 10원이 비싼 kg당 340원에 공급된다. 제품 생산을 담당하는 형원무역 강형식 사장은 “적어도 프리미엄 갈잎은 품질문제 때문에 농가 불만 사항이 접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단언하며 제품의 확실성을 강조했다.

본회에서는 갈잎큐브와 일반 갈잎, 프리미엄 갈잎과 더불어 알팔파큐브, 루핀 등 다양한 사료를 구비해 월동용 조사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끝마쳤다. **한국양육**